# 국내
# 마감시황

2026.4.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美-이란 협상 기대에 코스피 상승

트럼프, 이란 공격 유예 시한 하루 더 연장

주요 외신, 미국-이란 45일간 휴전 방안 논의 중이라고 보도

### 주요 지표 일간 변동

| KOSPI | KOSDAQ | KOSPI200 |
|---|---|---|
| 5,450.33pt (+1.36%) | 1,047.37pt (-1.54%) | 811.84pt (+1.69%) |
| **달러-원 환율** | **韓 10년물 국채 금리** | **S&P500 선물** |
| 1,503.90 원 (-7.5 원) | 3.7250% (-2.2bp) | 6,621.50pt (-0.01%) |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주요 수급 동향

| | KOSPI | KOSDAQ | KOSPI200 선물 |
|---|---|---|---|
| 개인 | -10,501 억 | +4,264 억 | +2,386 억 |
| 외국인 | -1,561 억 | -656 억 | -111 억 |
| 기관 | +8,369 억 | -3,711 억 | -2,445 억 |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제시했던 공격 유예 시한인 6일을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주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동시에 미국-이란의 협상 진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 기대감이 다시 확산됐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 약세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36% 올랐고, KOSDAQ은 1.54%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9.9조원, KOSDAQ은 약 9.8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금속과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8천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일 공개될 삼성전자 잠정실적 기대감과 D램 가격 인상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재 소재 판가 상승 전망으로 2차전지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LS ELECTRIC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전력기기주가 올랐습니다. 그 외 화학,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NASA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되자 우주·항공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방산, 조선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E&A(+12.58%), 에코프로비엠(+3.79%), 삼성전자(+3.71%)가 올랐고, LIG넥스원(-5.81%), 리가켐바이오(-5.03%), 한화오션(-4.6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